

파리 메트로폴리텐

김정희(서울대학교)

서론

본론

1. 배타적 기호: 지하철 노선도
2. 획일적 공간: 지하철
3. 이미지의 뒷: 지하철 광고

결론

서론

주지하다시피 지하철은 근대 문명이 낳은 대표적인 대중 교통수단이다. 그것은 저렴한 비용으로 사람들의 활동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혀줌으로써 도시생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일거에 향상시키고 도시인의 일상생활에 많은 편의를 제공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메트로폴리텐이라 불리는 파리의 지하철은 20세기 초부터 방사상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하여 대도시 전역을 거의 빠짐없이, 최단거리로, 최단시간 내에 연결시킨, 20세기 프랑스 기술문명의 상징이자 현대 거대도시로서의 파리의 면모를 대표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라시드 부제드라 Rachid Boudjedra 의 □노골적인 습격에 이상적인 지형도 *Topographie idéale pour une agression*

caractérisée □(1975)¹⁾는 바로 이 지하철을 소재로 문명과 인간 간의 관계에 대해 상당히 흥미로운 성찰을 보여주는 소설이다.

2차 대전 후 프랑스에 대거 몰려온 알제리 농촌출신의 이민노동자 눈에 비친 파리의 모습을 담은 이 소설 속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문학작품들을 통해 신화화된 파리의 지형은 철저하게 지워져있다. 지하철은 이들이 가장 자주 접했던 파리의 공간이자 이들 이민자에게는 일터와 숙소를 연결하는 단순한 교통수단 너머, 파리라는 도시를 바라보는 프리즘이었다. 즉, 이 소설이 묘사하는 파리 지하철, 메트로폴리텐 Métropolitain은 식민지출신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본토인 프랑스, 그 중에서도 그곳의 수도, 파리의 환유라고 할 수 있다. 파리의 지상공간이 가지는 아우라가 배제된, 다시 말해 파리를 여태 대변해온 랜드마크가 부재한 지하공간에서 이민자의 눈을 통해 독자가 발견하는 것은 탈신화화된 파리의 현실, 파리가 대변하는 현대 거대도시의 비인간적 구조, 그 속에서 파리의 아랍인이 소외되어 나가는 구체적 양상과 기제다.

이 소설은 파리 오스테를리츠역에 도착한 알제리출신 이민자가 사촌이 살고 있다는 곳의 주소가 적힌 쪽지를 들고 12시간 넘게 지하철에서 헤매다가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 채 그날 밤 몇몇 인종주의자들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고 만다는 줄거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줄거리는 70년대 초 프랑스 내에서 실제로 횡행한 아랍인 살해사건들을 소재로 삼은 것으로 라시드 부제드라의 이 소설은 이러한 일련의 인종주의적 폭력사태에 대해 발언한 최초의 마그레브 불문학 작품 중의 하나다.²⁾ 그러나 이 소설에서 우리의 관심을

1) Rachid Boudjedra, *Topographie idéale pour une agression caractérisée*, Paris, Denoël, 1975.

2) Charles Bonn, “*Topographie idéale pour une agression caractérisée de Rachid Boudjedra : roman de l’émigration, de la ville ou de l’écriture ?*”, in <http://www.limag.refer.org/Textes/Bonn/2003BoTopMigrVilleOuEcr.htm>, p. 2.

끄는 부분은 마그레케 구식민지인과 본토인의 대립구도, 거기서 파생되는 인종주의적 문제 너머 제3세계 농촌출신 이민자에 의한 서구 현대도시의 발견이라는 주제다. 작가가 파리 지하철을 소설의 주요 주제로 삼은 이유는 우선 그것이 이민자들에게 가장 친근한 공간이었기 때문이었지만, 달리 보면 지하철이 기술문명의 상징이자 현대 도시적 특성을 대표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작가는 프랑스의 인종차별주의자가 이민자에게 가한 폭력행위를 고발하는 것 너머, 현대화된 도시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파리에 홀로 내던져진 알제리 농촌 출신의 이민자가 겪는 좌절, 그리고 파리라는 도시 자체가 설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인간에게 얼마나 배타적이 될 수 있는지, 이민자가 겪는 유배의 고통이 파리라는 현대도시의 공간구조에 의해 어떻게 배가될 수 있는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이 소설에서 파리 지하철의 지형도는 주인공인 익명의 이민자보다 먼저 파리를 경험하고 돌아간 알제리인들의 과장되고 왜곡된 파리 체험담 속의 경이로운 장소, 또 매우 추상적이고 간단한, 다시 말해 최대한으로 약호화된 지하철 노선도, 그리고 이민자가 체험한 실재 지하철 공간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그려진다. 소설 주인공인 익명의 이민자가 겪는 혼란과 좌절, 소외감은 결국 이 세 종류의 지하철 지형도를 서로 일치시키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파리의 아랍계 이민자가 체험한 좌절과 소외를 야기한 지하철 공간의 비인간적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우리가 이 소설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인간이 현대문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하철에서 겪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부분으로, 그것들은 인간을 위해 발전해왔고 발전해나갈 문명이 어떻게 역설적으로 인간과 대립하고 비인간적인 측면을 강화하며 인간성의 상실을 가

저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문명과 인간 간의 관계가 반드시 호혜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은 21세기 디지털 문명의 비약적 발전을 목전에 두고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을 것이다.

본 론

1. 배타적 기호 : 지하철 노선도

이 소설의 주인공, 익명의 이민자가 파리에 온 이유는 단순했다. 그에게 파리는 일을 하면 돈을 조금 벌어들일 수 있는 곳이었다. 그렇게 해서 얼마 전에 죽은 암소를 대체할 소를 한 마리 사는 것이 그가 파리로 온 목적이었다. 당시 알제리 농촌 청년들에게 물이 찰랑거리는 이 “해외의 신기루 mirage d'outre-mer”³⁾를 가리켜 보이며 이민을 부추겼던 사람들은 바로 “라스카 laskar”⁴⁾라고 불리는 알제리 이민 1세대들이었다. 젊은 시절 프랑스로 떠나 백발이 성성해져서야 알제리로 돌아온 이들은 식료품 가게 골방에 모여앉아 노름을 하며 주변에 모여든 동네 청년들에게 자신들의 프랑스 체험담을 늘어놓는다. 가끔은 최근 신문을 빌려보면서 정보를 확충하긴 해도 대부분 오래된 사진, 20여 년 전의 신문, 미화된 기억에 의존한 이들 이야기 속의 파리는 상당 부분 부풀려지고, 거짓말이 더해지고, 연대와 장소까지 뒤죽박죽이 된 것으로, 현실 속의 파리와는 제법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⁵⁾ 그들 곁을 맴돌았던 청년 중의 하나였던 이 익명의

3) Boudjedra, *op. cit.*, p. 187.

4) 아랍어로 ‘군인’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단어는 1830년 이후 의미가 바뀌어 ‘배짱 좋은 사람’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된다.

이민자는 도미노게임을 핑계로 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밤이면 그렇게 얻어낸 단편적인 정보들을 짜 맞추어 파리에 대해 유용하고 이해 가능한 그 무언가를 만들어내었다고 믿었다. 파리는 알제리 작은 마을에서 비현실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여백투성이 모자이크의 형태로, 또 그들조차 감히 그 청년이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계획 속에서 신기루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미래에 대해 좌절한 점성가 *mages déçus par l'avenir*”⁶⁾의 말처럼 암시와 허상과 역설, 생략과 여담, 그리고 반어법으로 점철된 그들 이야기에 따르면, “지하철은 경이로움 그 자체, 그러나 너무 맛을 들여서는 안 되는 것”⁷⁾이었다.

이 이민자가 파리로 갈 결심을 굳히고 출발계획을 구체화하면서부터 파리는 하나의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한다. 그가 파리에 도착하여 찾아갈 만한 사람의 주소를 적기 위해 동네에서 프랑스어를 아는 유일한 존재였던 여자 아이가 불려오고, 그 일은 온 동네사람들이 모여 구경하는 가운데 하나의 의식처럼 진행된다. 이 여자아이가 주소를 적어준 종이쪽지와 파리의 지하철 노선도를 조합하는 일은 그가 넘어야 할 파리의 첫 관문이었다.

그의 눈에 비친 파리의 지하철은 현대 거대 도시와 그 작동 메커니즘, 즉 “모든 것을 쌓고 뒤섞고 토막내고 부수어버리는 집적의 법칙”⁸⁾이 지배하는 곳이다. 자연발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는, 철저할 정도로 통일된 체계와 구조로 짜여진 그곳을 지배하는 것은 단순, 반복, 대칭의 원칙이다. 그곳에선 특성화되고 차

5) 초기 이민자들에 의한 왜곡된 사실 전달에 관해서는 Abdelmalek Sayad, *La double Absence : des illusions de l'émigré aux souffrances de l'immigré*, Paris, Seuil, 1999, p. 39를 참조할 것.

6) Boudjedra, *op. cit.*, p. 72.

7) *ibid.*, p. 71.

8) *ibid.*, p. 218.

별화된 공간에 의존하는 기존의 공간 감각이 철저히 무화된다.

본능적인 공간 감각에 의존해 탐색하는 것이 불가능한 지하철은 공간이동법의 습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간이다. 그런데 공간이동을 용이하게 해주어야 할 노선도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주인공을 당황케 하는 환경의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비릇되고 있는 곳”⁹⁾이기도 하다. 샤를 본이 지적한 대로 “도시는 공간이 언어로 구성된 세계”¹⁰⁾지만,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그러한 언어의 체계는 내부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편적인 것, 누구나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 노선, 환승역과 환승이 가능하지 않은 역들이 각각 다른 색깔과 모양으로 구분되어 그려져 있는 파리 지하철 노선도는 더없이 간명, 명쾌하여 프랑스인들의 합리성, 그리고 계획도시로서의 파리의 면모를 유감없이 증명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적어도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언어능력이나 초보적인 지도해독력, 간단한 기호풀이 등의 사전지식, 혹은 그것을 체득할 만한 학습기간을 요구한다. 그러한 최소한의 사전지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 예를 들어 이 소설에서처럼 외국인, 그것도 농촌 출신의, 그리고 프랑스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노선도는 “자초지종을 이해할 수 없는, 선적 공간의 환상”¹¹⁾일 뿐이다. 팔레 루아얄을 중심으로 동심원적 구조만이 어지럽게 펼쳐질 뿐인 노선도 상의 파리는 이 이민자의 눈에는 일련번호가 매겨진 노선들이 이루는 “그물망”으로 비칠 뿐이다. 그리하여 소설 주인공인 익명의 이민자는 “여정 itinéraire을 설정하는 데 있다”¹²⁾는 지하철의 묘미 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그 점에서는 1970년대의 아날로그 방식의 노선도나 1990년대

9) *ibid.*, p. 79.

10) Bonn, *op. cit.*, p. 10.

11) Boudjedra, *op. cit.*, p. 79.

12) *ibid.*, p. 184.

이후 파리 시내에서 보이기 시작한 디지털 방식의 위치안내도는 서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도시의 편의시설들은 의도하지 않게 지식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는 경계선이 되며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언어는 이민자의 낯선 감정을 심화시키고 도시 내 아웃사이더를 가리키는 표지자로 기능하는 것이다. 타자의 이해체계를 넘어서며 타자의 행복에 대한 고려가 결핍된 약호들은 “의미없는 기호 *signe sans signification*”¹³⁾로서 폐쇄성과 이기주의의 상징이 되어버린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하여 만든 기호가 의미를 전달하지 못할 때 인간을 위한 문명은 더 이상 인간을 위한 것이 되지 못하는 아이러니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2. 획일적 공간 : 지하철

결국 그가 아라비아 숫자 외에 아무 것도 해독해내지 못한 지하철 노선도는 암호 그 자체였고, 암호를 풀지 못한 채 무작정 걷기 시작한 지하철은 “미로 *dédale*”¹⁴⁾였다. 미로의 주요 특징 중 하나가 길들의 형태가 똑같아서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이거니와, 파리 지하철 공간을 지배하는 통일, 대칭, 반복의 법칙은 역설적으로 이민자에게 “공간의 극단적인 혼란”¹⁵⁾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각 지하철 노선의 거의 모든 역들의 통로는 똑같은 자재와 색깔의 벽, 천정, 바닥으로 이루어져 있고, 마주 보는 열차 승강장에도 역시 똑같은 의자, 똑같은 역 이름이 적힌 표지판, 똑같은 광고가 부착되어 있다. 이렇게 고유의 매력이 결여된 획일화된 공간은 구분

13) *ibid.*, p. 95.

14) *ibid.*, p. 87.

15) *ibid.*, p. 87.

하여 인지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에 살해되는 순간을 제외하곤 단 한번도 지상으로 올라가지 못한 채 지하철을 타고 여정을 계속했던 그에게 콩코르드 광장이나 루브르, 팔레 루아얄 같은 파리의 명소들은 아무런 변별성을 갖지 못한 공간이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이민자의 눈엔 푸른 바탕에 흰색의 이해할 수 없는 글씨가 쓰인 표지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글씨를 해독하지 못한 그에게겐 익명의 공간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도시는 철저히 수단화된 공간이며, 공간 자체의 내적 의미가 증발해버린 공간이다. 파리의 각 지역명이 환기시키는 신화는 이 소설에서 이렇게 철저히 제거된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천편일률적인 통로와 승강장들, 수직으로, 수평으로, 혹은 평행선을 이루거나 직각을 이루며 그의 시야를 또 다시 가로막는 공간들은 “미로에 갇힌 생쥐가 부딪치는 벽”¹⁶⁾이었다.

Puis les couloirs succédant aux couloirs avec une monotonie que rien ne vient contrarier même pas les affiches publicitaires se succédant, elles aussi, les unes aux autres, dans une invariabilité systématique vrillant la rétine affolée et superposant les images les unes au-dessus des autres se poursuivant, se rattrapant, se chevauchant [...]¹⁷⁾

그리고 통로들은 또 다른 통로들로 이어지는데 그것들의 단조로운 음역 역시 체계적인 불변성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당황한 망막을 뚫고 연이어지고 따라잡고, 겹쳐지는 이미지들을 중첩시키는 광고 포스터들조차도 깨지 못하는 것이다.

16) *ibid.*, pp. 114-115.

17) *ibid.*, p. 14.

이렇게 지하철이라는 대중교통수단은 인간으로 하여금 도시공간을 주체적으로 연결하고 향유하게 만드는 대신 오히려 그를 결박하고 가두어버린다. 순전히 우연히도, 그는 목적지 근방의 역에 도착하지만 역 구내통로에서 다시 두 세 시간을 방황한다. 그것은 바로 다른 역에서 본 것과 똑같은 광고 때문이었다. 그것은 그에게 출발점으로 되돌아온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목적지까지 최단거리를 제시하는 지하철 안에서 공간은 자꾸만 빠져나가고 마치 에스컬레이터를 반대방향으로 탄 것처럼 그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출발점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지하철 공간의 폐쇄성은 결국 “17개의 정류장, 4번의 환승”에 성공하지 못함이 이민자가 결국 몇몇 인종주의자들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의 복선으로 작용한다.

노선도와 역 이름, 안내 표지판이 도처에 부착된 지하철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말이 필요하지 않은 공간이다. 서툰고, 제스처에 의존한 말은 더욱더 설 자리가 없는 곳이다. 최소한의 문자 해독력이 있으면 불편이 없도록 모든 정보가 외재화된 공간이지만 그곳은 또한 그러한 능력이 결여되었을 때 그것을 보완해줄 다른 기제가 작동하지 않는 공간이다. 그것은 이 이민자가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난 마그렘 청년으로부터 바스티유 역이름을 발음하는 법을 배워 정류장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려고 했을 때 지하철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에서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차창 밖으로 바스티유라는 글자가 10미터 간격으로 승강장 양쪽에 연속적으로 부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스티유?”라고 묻는 이방인의 말은 다른 프랑스인 승객들에게는 하나의 도발로 여겨진다. 그리고 급기야는 가방을 기차 밖으로 차버리는 폭력적 행위를 유발한다.

Bas-til-ile ? les autres à demi surpris, à demi choqués ou à demi

gênés par cette question inattendue et qui n'avait pas de sens puis □ que le mot Bas-ti-lle s'étalait partout blanc sur fond bleu dans une sorte de multiplication répétitive, tous les dix mètres et des deux côtés de la voie [...]18)

바스-티-유? 다른 이들은 이 예상치 못한 질문에 약간은 놀라고, 약간은 분개하고 혹은 불편해했다. 그것은 의미가 없는 질문이었거니와, 바스티유란 단어는 파란 바탕에 흰 글씨로 도처에, 10미터 간격으로 선로 양편에서 반복적인 증식의 형태로 펼쳐져 있었기 때문이다.

지하철 역 이름을 위시하여 이민자가 읽어내지 못하는 프랑스어 단어들은 “6밀리미터 총알보다도 더 고통스럽게 그의 갈비뼈를 관통”19)하고 결국 이방인은 아무에게도 묻지 않고, 항의하지 않고 하염없이, 기계적으로 걷기를 택한다.

Il était donc décidé à se laisser faire, bousculer, écraser les pieds sans aucune protestation (comment protester dans leur langue) sans aucune récrimination. Il continuait arpenter couloirs et quais sans solliciter personne, à bout de nerfs, à bout de souffle, le ventre creux et la tête vide ne sentant plus la valise au bout de son bras ankylosé.20)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밀치거나 발을 밟거나 아무런 항의도, 불평도 하지 않고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두기로 결심했다. (어떻게 그들의 언어로 따질 수 있겠는가) 그는 아무에게도 묻지 않고 통로와 승강장을 돌아다녔다. 신경이 곤두서고, 숨이 차고, 배는 고프고 머리는 텅 비어 더 이상 그는 마비된 팔 끝의 여행가방조차 느끼

18) *ibid.*, p. 51.

19) *ibid.*, p. 94.

20) *ibid.*, pp. 186-187.

지 못했다.

파리에 도착한 첫날, 새로운 도시공간에 적응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이 살해당한다는 극단적인 이야기 설정을 통해 작가가 형상화하려 했던 것은 도시생활의 편리를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되고, 체계적인 안내도가 존재하며, 모든 유용한 정보가 도처에 비치되어 있으나 바로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인간 개개인의 역할이 원칙적으로 불필요해진 공간, 그래서 서서히 비인간적 공간이 되어가는 파리의 역설일지 모른다. □노골적인 습격에 이상적인 지형도□라는 제목은 바로 그러한 공간에서 분출될 수밖에 없는 비인간적 행태를 암시한다.

이민자의 살해 사건 이후 벌어지는 조사에서 쏟아지는 말들은 이민자가 겪었던 소통부재의 현실을 또 다른 방식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다. 심포나 마침표 없이, 쉼 새 없이 이어지는 역장의 말은 타인의 개입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 상호대화가 불가능한 일방적 화법의 전형이다.

En fait, dit le chef en maugréant, il ne pouvait pas partir de la gare d'Austerlitz mais de la gare de Lyon et ceux qui l'aurait vu sur la ligne n°5 (Place-d'Italie-Eglise-de-Pantin) sont des fabulateurs d'autant plus que si nous partons dès le début sur une fausse piste on va perdre beaucoup de temps de toute manière le clochard n'est pas juridiquement apte pour témoigner il est tout le temps sous l'effet de l'alcool il en est de même de la vieille femme la preuve c'est qu'elle n'arrête pas de venir me casser les oreilles avec l'histoire de son fils mort là-bas je ne vois pas du tout le rapport il faudra d'ailleurs vérifier si réellement elle a eu un fils et s'il a été

tué comme elle le prétend en perdant son sang d'une blessure après qu'une balle lui a sectionné l'artère fémorale il faudra me vérifier tout ça quant aux autres témoins qui se sont récusés je voudrais que vous les harceliez toujours est-il qu'il n'avait rien à faire sur la ligne 5 longue de 11,220km [...] ²¹⁾

역장은 투덜거리며 말했다. 사실 그는 오스테를리츠역이 아니라 리용역에서 출발했었을거요 그리고 플라스 디탈리와 팡탱교회 간의 지하철 5번선에서 그 남자를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요 우리가 처음부터 틀린 길로 들어선다면 시간낭비가 많을 거요 어쨌든 그 거지는 사법적으로 증언능력이 없소 늘 술에 취해있으니 말이오 늙은 노파도 마찬가지로 잠시도 쉬지 않고 내게 와서는 귀가 따갑도록 내 보기엔 전혀 상관없는 그곳에서 죽은 아들 이야기를 늘어놓지 않소 정말로 그 노파에게 아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노파의 말대로 대퇴부 동맥을 뚫고 지나간 총알 때문에 출혈이 심해 죽었는지 다 확인해봐야 될 거요 다른 증인들은 다 증언을하기를 거절했소 그들을 계속 다그쳐주시오 어쨌든 총 11.22킬로미터의 5번선을 그가 탈 일은 없었겠지만 말이오

지나칠 정도로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효율을 중시하는 이 역장의 말은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이 끼어드는 것을 차단할 뿐 아니라 지하철에서 오가는 말 가운데 실제로 사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는 말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는 면에서 또한 흥미롭다. 그에 의하면 파리의 지하철은 다수의 양식있는 사람들이 침묵하는 가운데 비정상인의 효력없는 말, 수용되지 못하는 말들이 난무하는 공간이다. 지하철의 거지는 늘 술에 취해있기에, 그리고 늘 죽은 아들의 이야기를 하는 노파는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기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증언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파리 지하

21) *ibid.*, pp. 26-27.

철은 거지와 정신이상의 노파, 그 외 다수의 무관심한 다른 승객들로 요약되는 소통부재의 공간이다. 유일하게 이 이민자의 팔을 잡고 잠시 안내를 해주었던 한 여성은 파리 지하철 대중신화의 한 예외일 뿐이다.

3. 이미지의 뒷 : 지하철 광고

지하철 공간의 이러한 비인간성은 그곳이 자연의 생명력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라는 점에 의해 더욱 부각된다. 파리 지하철은 공기, 빛, 시간, 공간을 비롯하여 모든 것이 인공적이며, 현실세계의 것이라고는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다. 그곳은 사람들이 입을 옷의 정확한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는 강렬한 조명이 비추고, 사람들은 플라스틱 소재가 뿜어내는 유해한 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검은 안경을 착용한다.

Et ni les kiosques à journaux, ni les magasins de vêtements, ni les gens pressés, pressurés, exténués, exténuants et surtout impi- toyables pour eux comme pour les autres, cachant sous des traits rébarbatifs les moments où ils ont ri, pleuré, aimé, eu peur, souri etc., comme s'ils les camouflaient sous des masques en polyester couleur claire, ne sont authentiques.²²⁾

신문판매소도 또 옷가게도, 바쁘고 착취당하고 탈진해 있고 탈진 시키는, 특히 남한테나 자신한테나 인정사정없고 그들이 웃고 울고 두려워하고 미소지었던 순간들을 밝은 색 폴리에스테일 가면을 써서 감추듯 무뚝뚝한 표정으로 감추는 사람들도 진짜가 아니다.

22) *ibid.*, p. 95.

지하철 공간의 인공성, 지하공간의 음산함, 사람들을 에워싼 긴 튜브의 물리적 형태를 은폐하는 수단들은 도처에 산재해있다. 지하철에 설치된 타일, 기둥, 벤치, 광고 포스터와 전시용 작은 유리창, 사탕 자판기 등의 유일한 기능은 지하철 이용객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땅 속 깊이 매장되어 있음을, 그리하여 아무도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를 감지해내는 것은 다만 의심에 찬 이 이방인뿐이다.

모든 것이 회색빛이고, 음습하고, 흐물흐물한 인공적 공간, “인공조명이 결국 제대로 환히 밝히지 못하는 하나의 동굴, 모든 사람들이 푸른 숲과 자연광선, 잎이 우거진 오렌지나무와 남쪽지방의 쪽빛을 그리워하며 얼이 빠진 채,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움직이는 곳”²³⁾에서 유일하게 그를 안심시킨 것은 광고벽보 속의 오렌지 그림이었다. 껍질의 무늬와 색깔이 너무나 생생하게 그려진 오렌지는 그에게 자신이 아직 고향을 떠나지 않았으며 파리에서의 이 모든 경험이 하나의 악몽이고 고향의 라스카들이 자신에게 건 최면효과라는 착각을 잠시 불러일으킨다. 오렌지 그림과 더불어 지하철에서 그와 숨막힘과 두통, 변비에 시달리는 다른 승객들의 시선을 잡아끄는 이미지들은 푸른 바다, 부드러운 모래, 전원주택처럼 대부분 도시 밖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들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가 마침내 찾아온 해외의 오아시스, 파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겐 자신이 떠난 곳이 바로 모든 것이 풍요롭고 “자연이 자연 그대로 남아있는”²⁴⁾ 해외의 오아시스인 것이다.

Mais ce qui frappe, c'est l'encombrement de l'espace dans lequel elle se tient (si déjà l'été vous tente/hante) et l'impression d'abon□

23) *ibid.*, p. 120.

24) *ibid.*, p. 118.

dance et de prospérité sous-tendant l'idée que tout est bon marché dans les pays du soleil [...]²⁵⁾

그를 놀라게 한 것은 그녀가 서 있는 공간의 그득함, 태양의 나라에는 모든 것이 저렴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한 풍요와 번영의 느낌이다.

그런데 파리 지하철 공간의 인공성은 단순히 자연의 결핍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곳은 자연적인 것 *naturel*의 결핍 또한 두드러지는 인위적인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어느 것도 자연스럽지 않다. 모든 것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세심하게 이루어진 인간행동 연구, 시장조사와 현지조사 끝에 배치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자연광선 아래 펼쳐진 특 트인 대자연을 보여주는 여행사 광고가 우연히 지하철 통로에, 승강장에 부착된 것은 아니다. 목가적 삶의 즐거움을 환기시키는 지하철 내 광고 포스터들은 바로 그것의 결핍을 겨냥하고 있다. 그것은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결코 자연스럽지 않은, 철저한 소비심리분석에 입각하여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의 한 단면, 욕망의 억압과 분출의 경로를 통제하는 심리조종 패턴의 한 단면이다. 그를 잠시 들뜨게 한 광고포스터들은 소비자로 하여금 무한정 구매하고 소비하는 것 외엔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뜻이다. 파리는 맨 처음 이방인 눈에 비쳤던 지하철 통로가 보여주거니와, 소비사회의 대명사일 뿐이다.

Toujours est-il qu'on l'avait vu allant et venant dans les couloirs butant visuellement sur ces images de fromage de paquets de détergent de sauces tomate de paysages exotiques de plats cuisinés de poêles à frire de produits de maquillage de slips d'écritures à

25) *ibid.*, p. 196.

l'envers de machines à laver de tampons menstruels de maisons de campagne de canapés en cuir de papier hygiénique de femmes nues de téléviseurs de soutien-gorge de matelas moelleux de frigidaire d'automobiles de lave-vaisselle de voyages lotophages de spaghetti de bicyclettes de déodorants de yoghourts.²⁶⁾

어쨌든 지하철 통로를 오가며 이 치즈, 세제상자, 토마토소스, 이국적 풍경, 가공식품, 튀김냄비, 화장품, 속옷, 거꾸로 쓰인 글씨들, 세탁기, 생리용 탬폰, 전원주택, 가족소파, 화장지, 나체의 여자, 텔레비전 수상기, 브래지어, 폭신한 매트리스, 냉장고, 자동차, 식기세척기, 망각을 위한 여행, 스파게티, 자동차, 탈취제, 야쿠르트의 이미지에 눈길을 주는 그를 본 것은 사실이다.

광고 포스터들은 지하철이라는 비인간적인 공간을 오가는 군중의 시선을 잠시나마 붙들어둘 수 있는 모든 이미지들을 동원하면서 파리라는 도시를 또 다른 종류의 자의적 기호에 의해 암호화시킨다. 소비사회의 작동기제는 이방인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금기를 넘어서고 연상의 한계에 도전한다. 그리고 이민자는 여기서 또 한번 오독의 오류에 빠진다. 머리가 미풍에 흩날리는, 가벼운 옷차림의 여성, 그 손을 붙잡은 아이가 누군가를 환히 웃으며 바라보는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지만 그 사진 아래 삽입된 광고 카피 “아미라, 부드러운 탬폰”을 읽어내지 못하는 그에게 그 포스터는 파리를 처음 찾은 외국인을 반겨주는 환영 포스터로 읽힌다.

Lui, touché en plein cœur, s'absorbe dans la contemplation de la photographie et ne pouvant pas lire, il fait abstraction du slogan imprimé en lettres bleues sur fond blanc (Amira, le tampon doux) se disant en lui-même que les laskars auraient dû le prévenir

26) *ibid.*, p. 16.

que l'accueil dans les stations de métro était bon et qu'on allait jusqu'à dépenser de l'argent pour réaliser ces immenses photos représentant une mère heureuse et son enfant non moins heureux pour souhaiter bienvenue à tous les mécréants de la terre [...]²⁷⁾

가슴 깊이 감동한 그는 사진을 보며 깊은 생각에 사로잡혔다. 글을 읽을 수 없기에 그는 흰 바탕에 푸른색으로 쓰인 광고카피(아미라, 부드러운 탬폰)는 무시해버렸다. 라스카들은 세상의 모든 게으른 자들에게 환영의 뜻을 표하기 위해 행복한 엄마와 그녀만큼이나 행복한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대한 사진을 만드느라 돈을 쓸 정도의 지하철에서의 환대에 대해 이야기해주었어야 했다고 속으로 생각했다.

여성의 생리, 혹은 화장실 휴지처럼 배변과 관련된 상품 이야기, 스타킹 신은 여성을 애무하는 목욕가운차림의 남성의 행복한 시선을 보여주는 스타킹 광고가 버젓하게 그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공간에 부착되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방인이, 상품과 전혀 밀접한 관계에 있지도 않은 이 이미지들을 제대로 판독해내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지하철에서 유일하게 신선하고 부드럽고 인간적인 이미지들을 보여주지만 상품과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 그 광고들은 인간적인 면이 결핍되어 있는, 그래서 그것들을 갈망하는 파리 지하철 공간의 바로 그러한 속성을 이용한 것이다. 그 이미지들은 광고 포스터의 틀을 벗어나자마자 사라지는 신기루다. 고향에서 파리를 예찬하며 그로 하여금 그곳으로 떠나도록 부추긴 라스카가 말해준 파리와 이민자가 목격한 파리와는 간극처럼 광고 속에서 환히 웃는 어머니와 아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엄마가 때리던 아이 사이에, 그리고 광고 속의 스타킹을 신은 여성의 부드러움과

27) *ibid.*, p. 222.

지하철에서 본, 것처럼 아름다운 다리를 가진 여자의 냉랭함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이 존재한다. 광고 이미지는 끊임없이 내밀한 삶으로 초대하고, 친절하고 우호적인 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지만 그것은 바쁜 일상, 빠듯한 열차시간에 쫓기는 파리인이 잠시 꿈꾸며 바라보는 파리의 시물라크르일 뿐이다.

결 론

라시드 부제드라의 이 소설은 파리의 마그렙계 이민자들을 조명한 비교적 초기 불문학 작품 중의 하나로 이민자의 신산한 삶을 도시와 농촌의 대립구도 속에서 형상화시키고 있다. 해외의 오아시스로 알고 찾아온 파리에서 만 하루도 보내기 전에 인종주의자들에 의해 살해당하는 익명의 이민자는 그의 목숨을 결정적으로 앗아간 살해행위 이전에 이미 지하철 내에서 서서히 생명력을 상실해나가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작가는 그의 생명력을 서서히 소실시킨 것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인간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안된 현대문명의 산물임을 지적한다. 이 소설에서 현대화된 도시문명의 대명사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파리 메트로다. 70년대 중반에 쓰인 이 지하철 수기는 현대도시문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된 지하철이 오늘날엔 전세계적으로 보급되어 오히려 파리에 간 외국인이 가장 친숙함을 느끼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또 구식민지출신과 본토인 간의, 그리고 이민자와 토착민 간의 대립구도가 개입되면서 단순히 현대도시 문명과 인간의 문제로 보기엔 사건이 지나칠 정도의 참담함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일견 설득력이 부족해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파리 지하철이 갖는 비인간적 속성에 대한 작가의 예리한 관찰은 바로 문명의 변화

에 적기에 적응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구분이 너무나 확연한 오늘날의 디지털 문명사회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많다. 폐쇄성과 이기주의의 상징이 되어버리는 기호화의 경향은 최근 전개되는 디지털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더욱 강도높게 나타나고 있다. 파리 지하철 노선도의 에피소드는 최근의 디지털 격차 digital divide, 세대 간 격차 generation divide란 말이 단순히 일부 집단의 부적응 너머 인간 소외의 확대와 심화를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를 되돌아보게 한다.

□ 참고문헌

Boudjedra, Rachid, *Topographie idéale pour une agression caractérisée*, Paris, Denoël, 1975.

Bonn, Charles, “*Topographie idéale pour une agression caractérisée* de Rachid Boudjedra : roman de l’émigration, de la ville ou de l’écriture ?”, in <http://www.limag.refer.org/Textes/Bonn/2003BoTopMigrVilleOuEcr.htm>

_____, “L’Exil et la quête d’identité, fausses portes pour une approche des littératures d’immigration ?”, in *Cultures transnationales de France*, éd. par Hafid Gafaiti, Paris, l’Harmattan, 2001.

Sayad, Abdelmalek, *La double Absence : des illusions de l’émigré aux souffrances de l’immigré*, Paris, Seuil, 1999.

주제어 : 라시드 부제드라, □노골적 습격에 이상적인 지형도□, 파리, 이민자, 문명, 인간

Paris métropolitain

KIM Jeong-Hee

La Topographie idéale pour une agression caractérisée(1975) de Rachid Boudjedra raconte une journée d'immigré algérien nouvellement arrivé à Paris et l'histoire se déroule essentiellement dans le métro parisien dans les années 70. Il semble que le métro est choisi comme espace principal de ce roman, non seulement parce qu'il est l'espace parisien le plus fréquenté par des ouvriers immigrés, mais aussi parce qu'il est le symbole de la civilisation moderne par excellence. Il permet par là de traiter le sujet de la découverte de la ville moderne par un immigré venant du tiers monde, notamment d'un milieu rural. Notre étude consiste à montrer, à travers l'étude de la description minutieuse de ce qui arrive à cet immigré dans le métro parisien, comment la souffrance des immigrés peut être amplifiée par la structure spatiale d'une ville moderne, et par là comment la civilisation conçue essentiellement pour le bonheur de l'homme peut devenir sans le vouloir l'outil de la marginalisation et l'exclusion de l'homme.

오영주

서울대 불문과 졸업, 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파리 7대학 문학 박사.
현재 서울대, 덕성여대 강사.

주요 논문 : 「플로베르, 정치와 사랑의 감상주의 비판 Flaubert, critique du sentimentalisme social et amoureux」(박사학위 논문, 2001), 「플로베르의 '비개인성' 소설미학 L'«impersonnalité», ses exigences et ses implications」(불어불문학연구, 제53집, 2003), 「18세기 리베르탱 문학의 한 양상 : 이성과 비이성의 연합전선」(불어불문학연구, 제55집, 2003), 「이성의 신앙고백 : 줄라의 □파스칼 박사□」(불어불문학연구, 제60집, 2004) 등 다수.

저서 : □마담 보바리, 현대문학의 전범典範□.

오생근

서울대 불문과 졸업, 동대학원 석사. 파리 10대학 문학 박사. 현재 서울대 교수, 불어문화권연구소 소장.

주요 논문 : 「앙드레 브르통의 삼부작 소설(□나자□, □연통관들□, □정열적 사랑□)의 형식과 의미 Les récits d'André Breton - formes et significations」(박사학위 논문, 1983), 미셸 푸코, 불어권 아프리카 문학, 프랑스 현대시, 초현실주의 문학 등을 주제로 한 논문 다수.

저서 : □삶을 위한 비평□, □현실의 논리와 비평□, □그리움으로 짓는 문학의 집□, □문학의 숲에서 느리게 걷기□.

역서 : 푸코의 □감시와 처벌□ 등 다수.

김정희

프랑스 엑스-마르세유 1대학 졸업, 파리 3대학 문학 석사 및 박사.
현재 서울대 불문과 교수.

주요 논문 : 「시선과 말 : 크레티앵 드 트루아의 □수레를 탄 기사□에서 □산문 랑슬로□의 '수레 이야기'까지 Le regard et la parole : du Chevalier de la charrette de Chrétien de Troyes au 'Conte de la charrette' dans Lancelot en

prose」(박사학위 논문, 1993), 「아더왕 신화의 형성과 해체 I」(중세영문학, 제4집, 1996), 「아더왕 신화의 형성과 해체 II」(불어불문학연구, 제46집, 2001), 「이중의 문화, 이중의 부재」(프랑스 어문 교육, 제20집, 2005) 등 다수.

도운정

서울대 불문과 졸업, 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파리 7대학 문학 박사. 현재 상명대, 인하대 강사.

주요 논문 : 「동양미학에 비추어 본 말라르메의 여백의 가치들 Les valeurs du "blanc" chez Mallarmé éclairées par l'esthétique de l'Extrême-Orient」(박사학위 논문, 2004), 「말라르메의 □주사위 던지기□의 판본들 - 공간적 시의 형성 과정 Les éditions d'*Un Coup de Dés* de Mallarmé - un processus de construction du poème spatial」(불어불문학연구, 제61집, 2005).

전선형

서울여대 불문과 졸업, 서울대 불문과 대학원 석사 및 박사. 현재 서울대, 서울여대 강사.

주요 논문 : 「M. Duras의 *L'Amante anglaise*에 관한 고찰 - 광기의 주제를 중심으로」(석사학위 논문, 1997), 「뒤라스의 인도 연작에 나타난 '텍스트 상관성' 연구」(박사학위 논문, 2005).